

# 목포시, 공동주택 근로자 4대 보험료 전수조사 실시

###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관리비 처리 부적정 사례 적극 대응 예정 자체 관리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관리지침 제작·보급

목포시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들이 관리하는 아파트 근로자들의 간접 인건비인 4대 보험료 등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최근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관련해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청구, 납부금액 보다 과다 청구한 사회보험공단 보험료, 1년 미만 근

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시 감면 수도요금 처리 등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의 관리비 처리 부적정 사례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등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4대 보험료와 관련해 위탁 관리업체들이 아파트에서 청구한 금액과 사회보험공단에 납부한 내역을 확

인하기 위해 위탁 관리 중인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 4대 보험료 납부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다. 점검 결과 2개 공동주택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8일 17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청구·납부 관련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시는 제출된 자료에서 과다 청구된

사례를 발견할 경우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아파트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탁관리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방법 등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관리하며 청구되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자 적립금, 시에서 감면 부과한 수도요금 관

리, 근로자 연차수당 등에 대한 아파트 관리지침을 제작·보급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관리소장 등과 협력해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이룰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겠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영암군 "임대농기계로 경영비 절감하세요"

### 작년 임대실적 최다 기록 갱신

영암군은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평균 17% 증가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절감과 영농효율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은 3개소(덕진분점, 서부분점, 시종분점), 총 34종 701대의 임대농기계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 관내 7,824농업인이 12,584일간 6,395ha의 농작업을 추진해 영암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개월 동안 농기계임대료 감면을 통해 임대농기계 6,298건, 190백만원의 농업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와 관내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임대실적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특히 관리기, 승용예초기, 전동가위, 퇴비살포기, 배토기 순으로 임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밭작물과 과원관리에 편리한 농기계가 주로 임대되었으며, 겨울철에도 유희농지 활용을 위한 경운정지용 임대농기계가 임대되어 계절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임대실적 상승을 보였다.

임대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해 100여회를 농작업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함으로써 원활한 농작업에 도움을 주었으며, 두류 일괄풍정선장(말, 약콩, 백대 등)을 운영해 137농업인이 52톤을 정선해 밭작물 농기계회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매년 농기계 임대실적 증대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난해 전국 141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 결과 상위 15%그룹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금년에도 농민들에게 임대농기계 사용 편의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한 영농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 하겠다"고 전달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박준영 해수부 차관, 신안서 갯생이모자반 피해상황 점검

### 강풍으로 해안가 및 양식장에 2000여톤 유입 예상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오후 신안군 자은면 양산해수욕장과 육지어촌계 김 양식장 갯생이모자반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다.

신안군에는 금년 새해부터 시작된 강풍으로 인해 해안가 및 양식장에 유입된 갯생이모자반은 1,900여톤으로 아직 파악이 안된 해상양식장과 강한 바람으로 추가 유입될 갯생이모자반은 2,000여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배를 타고 육지어촌계 김 양식장 피해상황 확인과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신안군은 갯생이모자반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11억 8천만원을 14개읍·면과 3개사

업소에 배정하였으며 해안가 및 양식장에 부착된 모자반을 수거하는데 비치클리너와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수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안가에 밀려든 모자반은 중장비로 수거가 가능하지만, 양식장에 부착된 모자반은 일일이 손으로 수거작업을 해야돼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안군 수산물 김, 미역, 전복, 우럭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갯생이모자반이 연안에 유입되기 전 예측을 통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 공조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무안군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29일까지 접수...특화작물 육성·인프라 구축·생산장비 지원



무안군은 과수 농가들의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은 원예작물

분야특화작물육성사업, 원예작물인프라구축사업, 고품질과수생산장비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00만원이다.

원예특작분야 특화작물육성사업은

고소득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미니박호박, 목이버섯, 멜론 등을 지원하였다.

원예작물인프라구축사업은 주로 단동하우스만 지원해오다 올해부터는 2중하우스, 양액시설, 토경관비시설, 연동·광촉하우스로 대상을 확대하여 농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또한 고품질 과수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과수 고소작업차만 지원해오다 올해 과수 생산에 필요한 장비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원예특작물 재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 영광군, 수도 동파·동결 민원 급증...민원처리 총력

### 동파·동결 297건 처리 사업소 3개반 10명 운영

영광군은 최근 기습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와 가정 급수관 동파 및 동결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운영 중인 '현장민원 기동처리반'을 2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이어진 한파로 일일 최대 70건 등 현재까지 총 420건 이상의 민

원이 접수되어 긴급 민원 기동처리반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시공팀 3개조를 운영, 접수된 민원을 읍면별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동파와 동결된 수도계량기와 관로 해동작업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 속에 헨웃, 스티로폼, 헝겊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 찬 공기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보온재로 밀폐하고 수

도꼭지 밸브를 약하게 틀어 수도물을 가늘게 흘려주는 등 수용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팩(가정용) 1,000개 및 동파 예방 홍보물 10,000매를 배부하였다.

동파 및 동결 민원에 대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061-350-5521~5528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